싱그러운 꽃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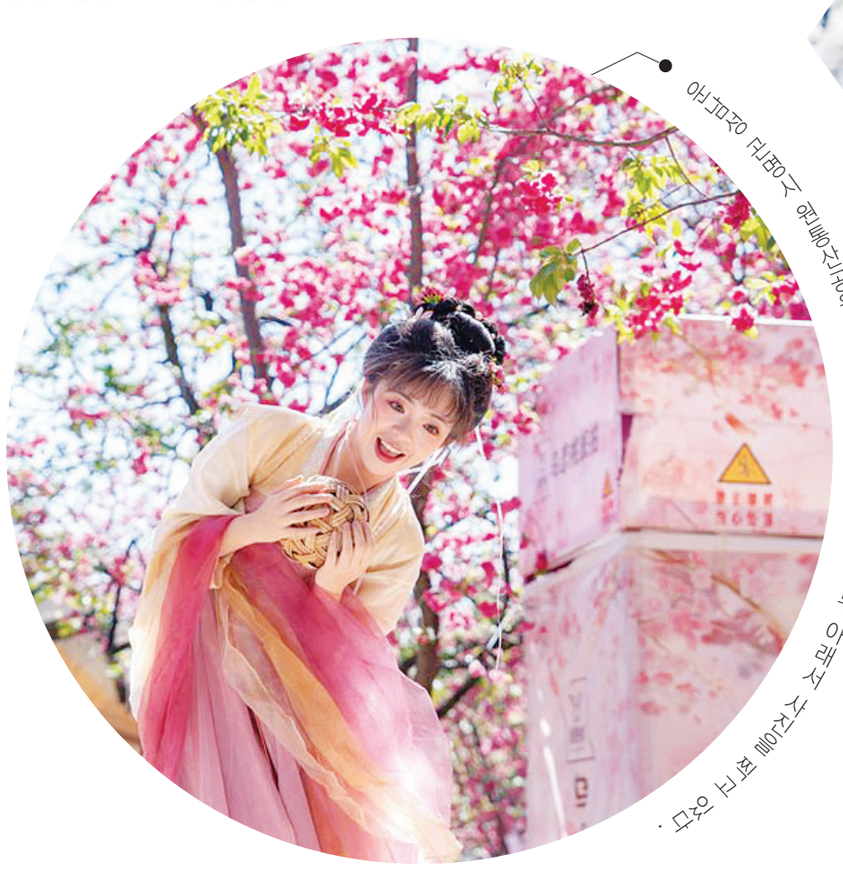
귀주성 귀안신구 벗꽃공원에 벗꽃이 만개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전국 각지서 펼쳐지는 봄의 향연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이 풀리고 봄을 알리는 새소리가 울려퍼지며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이 움트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각지는 봄의 향연이 한창이다. 최근 주말시간에 공원과 관광지를 방문해 벗꽃을 감상하고 봄볕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활짝 핀 꽃들이 어우러져 한폭의 산수화같은 봄 풍경 속에서 관광객들은 너도나도 봄을 만긱하고 있다. / 신화넷

중경시 유양투쟈족묘족자치현 소재 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

항주시 서호에 벗꽃이 만개하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아뉴포 마편스 연배소리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벗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고 있다.

절강성 항주시 태자만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꽃을 감상하고 있다.

중경시 유양투쟈족묘족자치현 소재 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

사천성 로주시 강양구 벗꽃 명소에서 배를 타고 꽃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드론 사진)

'봄철 유채꽃 관광 페스티벌 및 차 (茶) 문화 페스티벌'이 23 일 절강성 주지시 동백호진에서 열렸다.

主管 / 主办 : 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 : 吉林朝鲜文报社 印刷 : 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 : 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 : 130011 传真 :87627100 广告许可证 :2200004000046 定价 : 180 元 / 年
编务办 : 87619812 全媒体中心 : 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 : 87627091 延边记者站 : (0433) 2518860 吉林记者站 :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 :13604447151 白山记者站 : (0439) 8224384 首尔分社 :+82 (02) 7868089